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

장 순 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6페이지)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로 되는것은 첫째로, 그것이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의 대외경제적권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기때문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대내적으로는 자립경제강국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높은 대외경제적권위를 가지고있는 강국이다.

자립경제강국은 결코 《고립경제》나 《폐쇄경제》를 가지고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강한 대외경제적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높은 대외경제적권위를 가지고있는 나라이다. 높은 대외경제적권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를 결코 경제강국이라고 말할수 없다.

나라의 대외경제적권위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을 통하여 높아진다.

오늘 나라들사이의 경제적연계는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고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나라들사이의 경제적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국제시장에서 높은 대외경제적권위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때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립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경제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수 있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비렬한 경제봉쇄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발전을 각방으로 저해하고있는것도 바로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경제강국의 대외경제적권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로 되는것은 둘째로, 그것이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기간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생산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하루빨리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할수 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는데 필요한 첨단과학기술

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다른 나라의 앞선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연구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귀중한 시간과 자금만을 낭비할수 있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첨단과학기술을 자기 기업의 국제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며 다른 나라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면서 다른 나라에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 합영, 합작, 과학기술교류와 같은 공간들을 잘 리용하면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받아들일수 있다. 다른 나라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리 나라에 초청하여 과학기술토론회, 강연회 등을 조직하거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다른 나라에 참관단, 실습생, 류학생들로 파견하여 해당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전수해 오도록 하는 인적교류와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창조된 설계문건 등과 같은 기술문건을 비롯한 과학기술적재부와 과학기술도서의 교류와 같은 물적교류 등은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자체의 연구비용과 로력, 시간을 절약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첨단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 정보화해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로 되는것은 셋째로, 그것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고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된다.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만들고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에 없거나 극히 부족되면서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긴요한것들은 일정한 기간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대외경제관계에서 기본인 대외무역, 수출무역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농산물과 축산물, 특수한 공예작물, 과일과 우리 나라에 풍부한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규석, 희토류와 같은 자원들을 2차, 3차 가공하여 다른 나라에 파는 가공품수출무역과 특허권, 실용신형권, 상표권을 비롯한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거래와 같은 기술무역, 대외수송봉사 및 관광봉사무역, 기술개발봉사와 자문봉사와 같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높은 실력에 기초한 여러가지 형태의 지적봉사무역 등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일변도를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

역구조를 개선하는것이다.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켜야 한다.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킨다는것은 무역거래와 관련한 협정, 계약 등을 통하여 무역거래당사자들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사항 다시말하여 계약에서 합의된 무역거래당사자들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어김없이 성실하게 리행한다는것이다.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자면 당의 대외무역정책과 국가의 무역관련법을 옳게 인식하고 해당 시기 나라의 경제기술적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무역계약을 옳게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자로서 계약에서 합의된 수출품의 량과 질을 정확히 보장하고 납입기일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수입자로서 수입품대금과 수입과정에 있게 되는 수송을 비롯한 여러가지 봉사에 대한 요금을 제때에 지불하고 수입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입된 상품을 물리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대외무역에서 일변도를 없애고 다각화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에서 일변도를 없애고 다각화한다는것은 무역거래상대국을 어느 한 나라에 국한시키지 말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도 확대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다.

대외무역에서 일변도를 없애고 다각화하자면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한다는것은 이전의 원료, 자원수출위주의 무역으로부터 2차, 3차가공품, 완제품수출위주의 무역을 진행한다는것이며 상품수출위주의 무역으로부터 기술무역, 봉사무역위주의 무역으로 넘어간다는것이다.

나라의 무역구조를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선하자면 생산기술공정을 현대화, 정보화하고 제품가공기술을 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실력을 높여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가치있는 기술무역상품과 지식형봉사제품을 내놓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보장하는 봉사시설들을 잘 꾸리고 현대화하며 관광봉사의 질을 높이고 봉사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는것이다.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한다는것은 합영, 합작의 대상과 형식의 선정 등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합영, 합작을 조직함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 나라의 실정과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대상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부차적인 부문이나 기업들로 대상을 선정하거나 로력을 제공하고 원료, 연료나 팔아먹는 식으로, 자본가들의 기술갱신부담이나 덜어주고 돈주머니만 불구어주는 식으로가 아니라 합영, 합작을 진행하는 과정에 첨단기술을 넘겨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영과 합작형식가운데서 어느 형식이 투자가의 기술을 빠른 기간안에 우리의것으로 만들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겠는가를 잘 타산하여야 한다.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것이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준다는것은 경제개발구들에 다른 나라 투자가들의 투자에 유리한 법과 규정, 하부구조를 마련하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해준다는것이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자면 세계 여러 나라 경제개발구들에서 실시되고있는 법률적, 경제적환경에 대한 연구를 잘하여 외국투자가들이 우리의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투자에 더 흥미를 가지고 더 많이 투자하도록 새로운 법과 규정을 제정하는 사업과 현재의 법과 규정에 대한 수정보충사업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잘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개발구들에서 하부구조건설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등과 같은 분야에서 여러가지 특혜조건들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대외경제일군들은 대외경제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